

“강진품애(愛) 살아 보세요”

군, 주소 이전 운동 본격 추진 기관단체·기업체 전입지원금

“강진품애(愛) 살아 보세요.” 강진군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진품애(愛) 살기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품애(愛) 살기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관내에 거주하고 주민 중 관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소 바로 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이다. 강진군은 귀농·귀어·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기관·단체 임직원 중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강진에서 살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강진품애 살기 운동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군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각 기관에 배부·게시하고, LED 광고 송출로 인구 유입에 적극 대응해 왔다. 최근에는 지역 기업인 에스디피비이(주)에서 강진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이용해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들을 전입하도록 독려해 총 14명이 전입했다.



강진군 관계자들이 지역 기업인 에스디피비이(주)를 찾아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들을 전입하도록 독려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진행했다. <강진군 제공>

군은 강진품애 살기운동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단체, 기업체에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직원 수 5인 이상 기관·단체나 기업체 중 3명 이상 5명 이하 전입한 기업은 20만원, 6명 이상 10명 이하는 50만원,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100만원, 21명 이상 전입한 기업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강진을 위해 산단 조성, 인구 공모사업, 도지 재생사업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전 주민이 강진품애 살기 운동을 실천한다면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메밀꽃 흐드러진 장흥 선학동 마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에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고(故) 이창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으로 유명한 선학동 마을에는 총 20ha 규모의 메밀밭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장흥군 제공>

나주시,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용역보고회 갖고 공모사업 신청

나주시가 영산포 이창동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 사각 지대 해소와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의회, 주민협의체 관계자 등과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관련 용역 보

고회를 하고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성장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심 속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것으로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4년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폭 4m 미만의 불량 도로에 접한 주택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 등인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영산포 지역 관문인 영산대학교에서 이창동으로 이어지는 경사면과 노반 산 밑 골목길 정비 등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미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영산동과 영강동과 함께 이창동까지 영산포 3개 동의 균형발전과 낙후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관광지에 ‘감성 포토존’...즐거움 선사

코로나19 지친 일상 위로 관광객 참여 이벤트 진행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열지 못하는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관광지 곳곳에 특색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담양군이 설치한 포토존은 ‘가을을 담다’를 주제로 울긋불긋 단풍잎과 파파스 등을 활용해 영산강 문화공원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꾸몄다. 대나무박물관에는 감성 가득한 글과 대나무 사이사이에 설치된 가랜드(데코레이션) 포토존이 산책하기 좋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어린이프로방스에 할로윈 기간에 맞춰 호박, 거미줄 등 할로윈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

공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벤트를 열어 담양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포토존 방문 인증샷을 올리면 선정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중순 담양군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포토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및 대면행사가 줄어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더하고, 1인 여행객 및 감성 셀카족들이 편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관광지의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여행자의 도시 담양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가을 포토존을 통해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만끽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영원히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나무박물관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있다. <담양군 제공>

화순군,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2022년 336곳에 23억원 투입

화순군이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치 지원에 나선다. 화순군은 2022년 총사업비 23억원(국비 12억 2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6억 9000만원, 자부담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주택과 건물, 공공시설 336곳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자는 설치비의 약 12%만 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3kW를 설치하면, 주택 1가구당 연 60만 원의 전기요금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설비 확산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주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정책을 위한 사업 확대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2년 연속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이 최근 열린 제12회 물산업 미래비전포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물 산업 미래비전포럼은 ‘코로나 시대, 효율적 물 관리 선진화 방안 및 물 기술 소개’를 주제로 환경타임즈, 환경방송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후원해 개최됐다. 장흥군은 상수관 노후시설 교체와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깨끗하고 안정

적인 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253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도물 공급 과정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